

numbers
vol. 314

한국사회 갈등과 통합

국민 이념 성향, 중도 줄어들고 보수/진보로 양극화 추세!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① 2024 고독사 실태

2025. 1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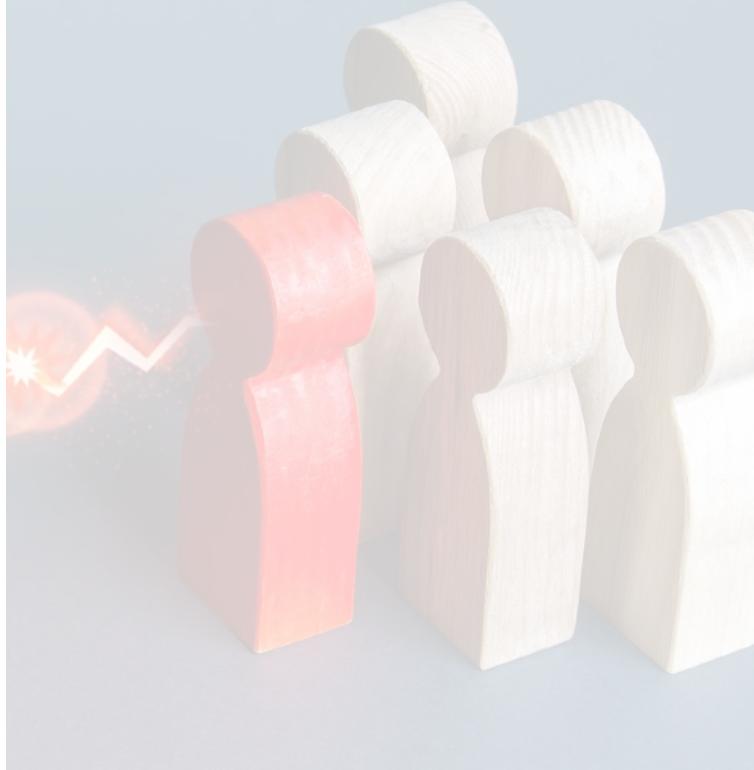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국민 이념 성향, 중도 줄어들고 보수/진보로 양극화 추세!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 속도만큼이나 갈등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 조사(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24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등)에 따르면 국민 행복감은 소폭 상승했지만 걱정과 우울은 크게 늘었고,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 역시 2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심각하다. 국민의 93%가 한국사회 갈등이 '심각하다'고 평가했으며, 갈등의 원인도 경제적 격차를 넘어 가치관 충돌과 이해 대립으로 이동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의 약화도 확인된다.

이번 <넘버즈 314호>에서는 이러한 갈등과 신뢰, 정서적 변화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교회가 오늘의 분열된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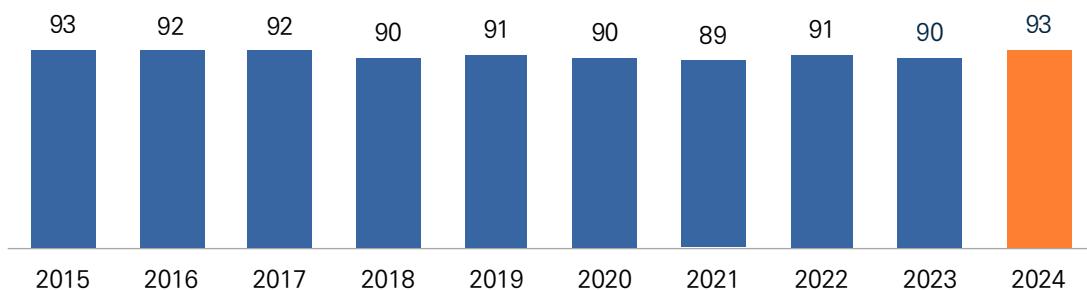
01

[사회 갈등]

국민 93%, 한국사회 갈등 ‘심각’...전년 대비 3%p 상승!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에서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 갈등 현황을 살펴본다.
-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에 대해 2024년 기준 우리 국민의 93%가 ‘심각하다’고 인식해, 전년(90%)보다 갈등 체감도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지난 10년 동안 큰 변화없이 9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 (일반국민, ‘심각하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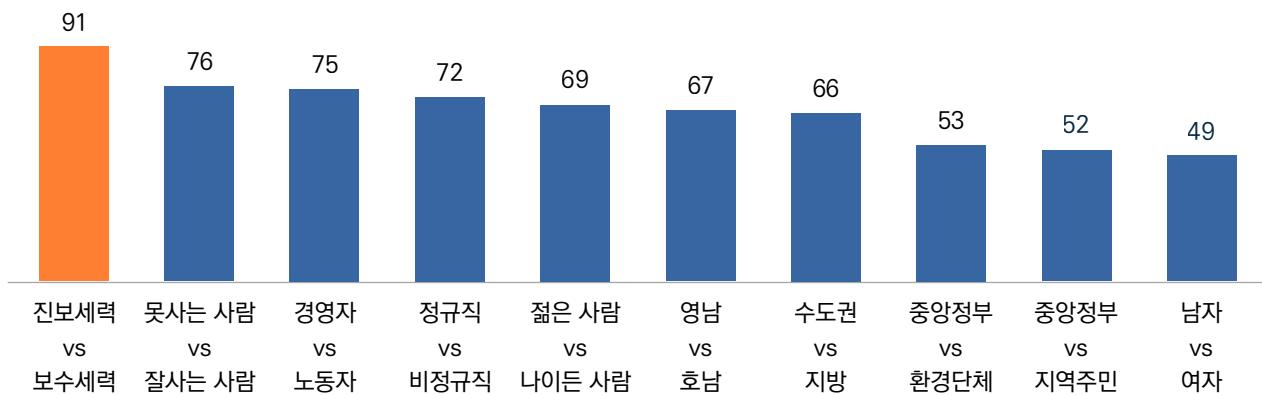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4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5.01.23.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12.30. ~2025.01.06.)

*본래 10점 척도, 구간별로 심각하지 않다(전혀+별로), 보통, 심각(매우+약간)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임

한국의 가장 큰 갈등 영역, 1위는 이념갈등!

- 14개 집단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갈등 심각성을 평가한 결과, ‘심각하다’(매우+약간)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으로 91%에 달했다. 이어 ‘못사는 사람과 잘사는 사람’ 76%, ‘경영자와 노동자’ 75% 등의 순이었다.

[그림] 집단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 (2024, 일반국민, ‘심각하다’ 비율*, 상위 10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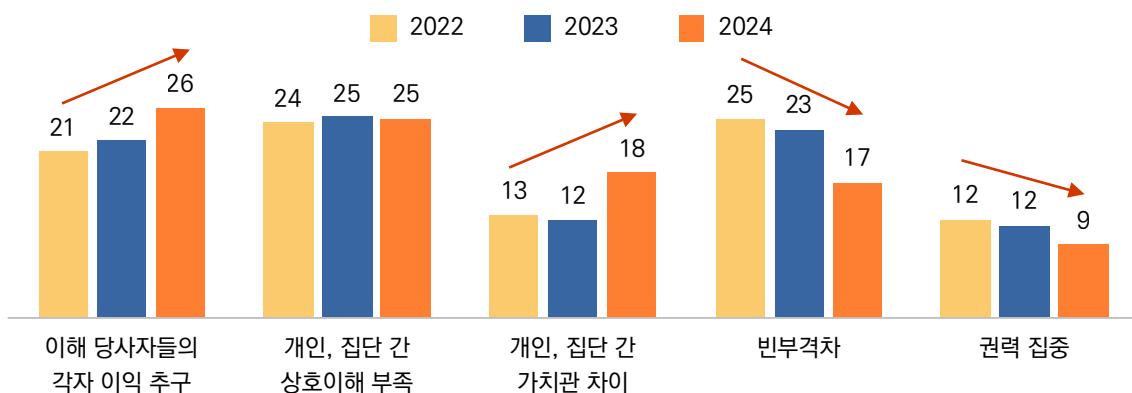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4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5.01.23.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12.30. ~2025.01.06.)

*5점 척도

갈등의 주된 원인, 경제적 격차에서 '가치관·이해 대립'으로 이동!

- 한국행정연구원은 매년 초 주관적 웰빙, 사회적 소통, 신뢰, 관용성, 사회보장 등 8개 부문을 조사해 우리 사회의 사회 통합 수준을 진단하고 있다.
- 최근 발표된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사회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각자 이익 추구'와 '개인·집단 간 가치관 차이'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꼽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빈부격차'와 '권력 집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이 같은 변화는 한국사회 갈등의 중심축이 경제적 격차에서 이해당사자 간 이익 경쟁과 가치관 충돌로 뚜렷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사회 갈등의 원인 (2022~2024, 일반국민,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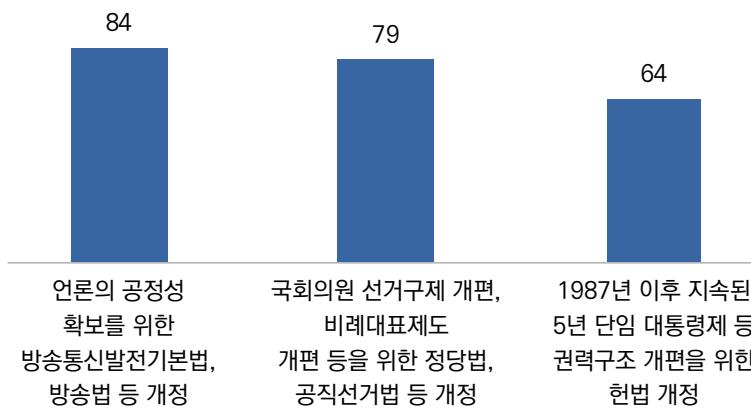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5.01.(만 19세 이상 남녀 8,251명, 케이스탯리서치, 면접조사, 2024.08.01.~09.30.)

사회 갈등 완화의 핵심 과제, 언론 신뢰 회복과 정치 제도 개선!

-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시급성을 물어보았다. 그결과,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법 등 개정'이 8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비례대표제도 개편을 위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개정'(79%),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64%) 순이었다.
- 국민들은 언론 신뢰 회복과 정치제도 개선이 갈등 완화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책 도입 시급 정도 (2024, 일반국민, %)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4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5.01.23.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12.30. ~2025.0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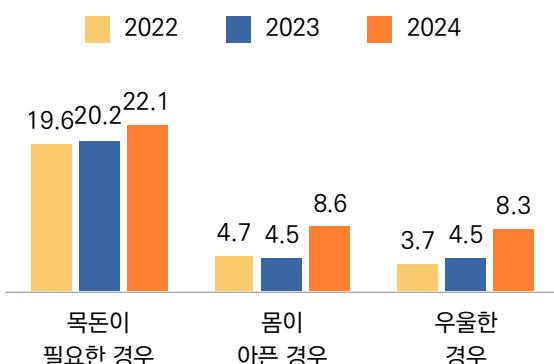
02

[사회적 고립/포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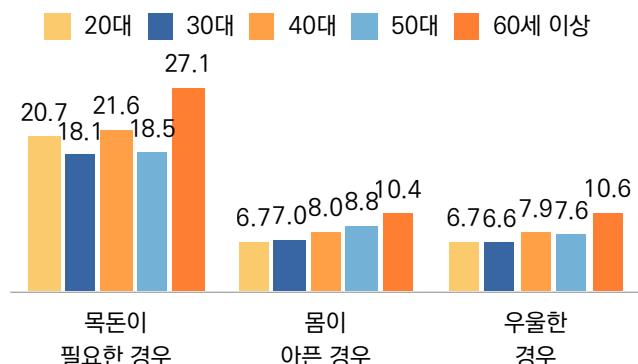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없다',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 금전적·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19.6%→22.1%), '몸이 아픈 경우'(4.7%→8.6%), '우울한 경우'(3.7%→8.3%) 모두에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도움받기 어려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27.1%), 몸이 아픈 경우(10.4%), 우울한 경우(10.6%) 모두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령층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비율
(일반국민, %)



[그림] 연령별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비율
(2024,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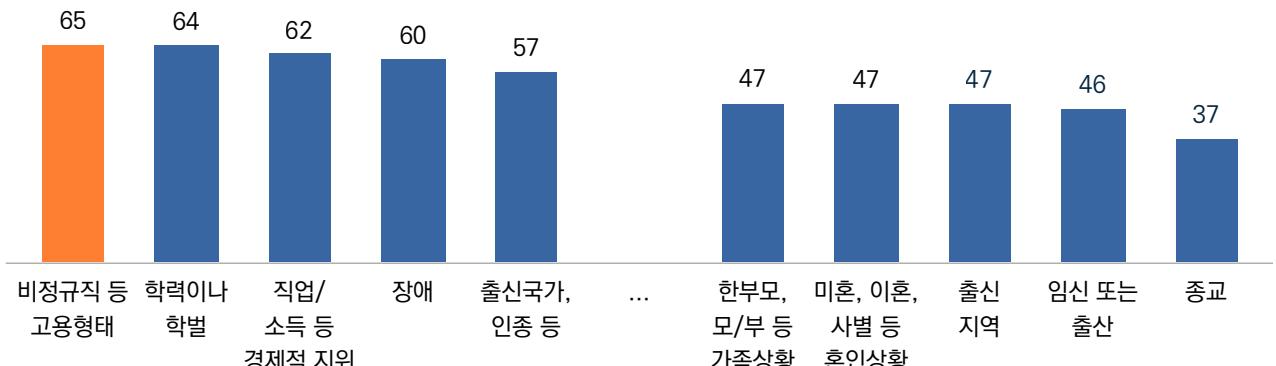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5.01.(만 19세 이상 남녀 8,251명, 케이스탯리서치, 면접조사, 2024.08.01.~09.30.)

우리 사회 차별, '고용형태' 가장 높고, '종교'는 가장 낮아

- 우리 사회의 차별 인식을 살펴보고자 16가지 조건을 제시한 후 이로 인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고용형태'(65%)가 가장 높은 차별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어 학력·학벌(64%), 경제적 지위(62%), 장애(60%), 출신국가·인종(57%) 등의 순이었다.
- 반면 '종교(37%)'에 따른 차별 인식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차별 인식이 주로 고용, 학력, 경제적 지위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종교적 요인에 대한 차별 체감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 (2024, 일반국민, '매우+약간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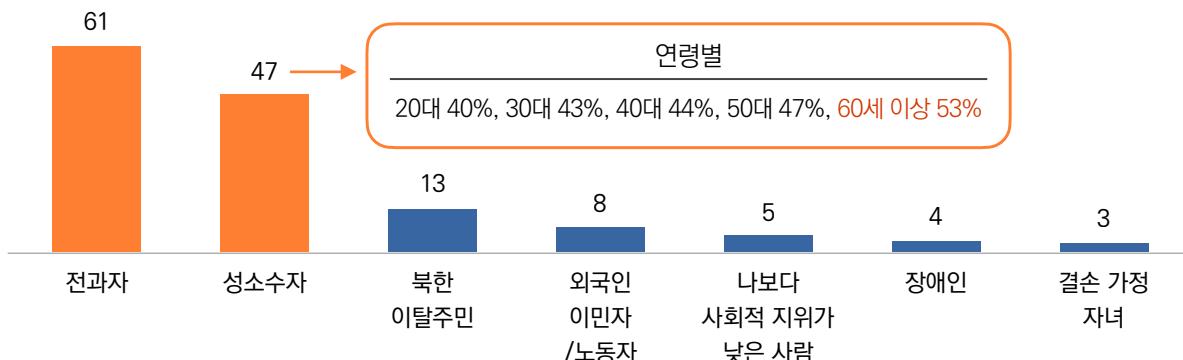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5.01.(만 19세 이상 남녀 8,251명, 케이스탯리서치, 면접조사, 2024.08.01.~09.30.)

*4점 척도

성소수자 ‘받아들일 수 없다’ 47%!

- 우리 국민들은 소수자 집단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와 관련 7개 소수자 집단을 제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수용도를 물었다. 그결과, 가장 배제 인식이 높은 집단은 전과자(61%)였으며, 그 뒤를 성소수자(47%)가 이었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성소수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했다.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소수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반면, 장애인(4%), 결손 가정 자녀(3%) 등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응답이 매우 낮아, 소수자 배제 인식이 집단별로 크게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소수자 배제 인식 (2024, 일반국민, ‘받아들일 수 없음’ 비율, %)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5.01.(만 19세 이상 남녀 8,251명, 케이스탯리서치, 면접조사, 2024.08.01.~09.30.)

성소수자 ‘수용 불가’ 인식, 10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

- 이번에는 최근 10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본다.
- ‘성소수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0% 중후반을 유지했다. 이후 2018년에 49%로 한차례 크게 떨어졌으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다시 54~57% 수준으로 회복했다.
- 그러나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024년에는 47%로 떨어져,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림] 성소수자 배제 인식 추이 (2015~2024, 일반국민, ‘받아들일 수 없음’ 비율, %)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5.01.(만 19세 이상 남녀 8,251명, 케이스탯리서치, 면접조사, 2024.08.01.~0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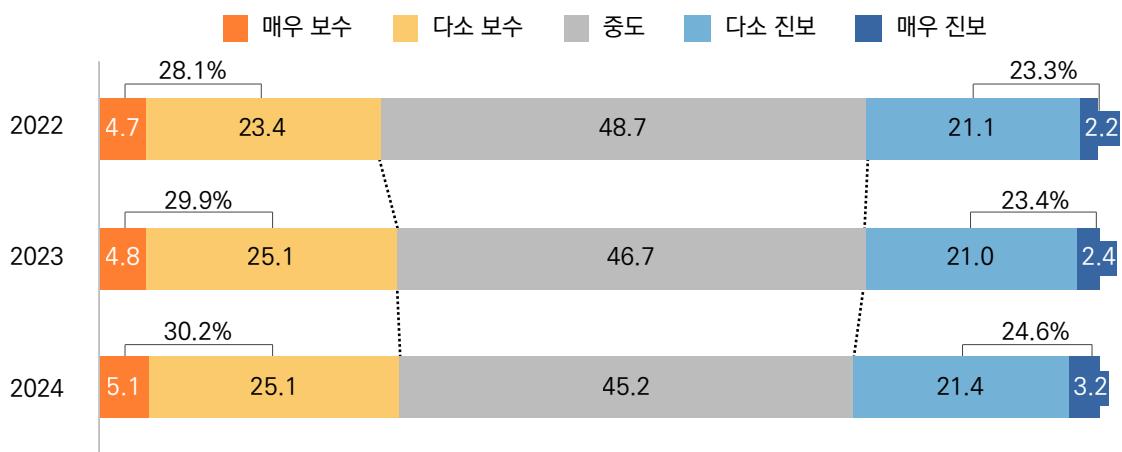
03

[사회 통합]

국민 이념 성향, 중도 줄어들고 보수/진보로 양극화 추세!

- 일반 국민의 이념 성향을 살펴보면, '중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45.2%). 그러나 최근 3년간 중도층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보수와 진보 응답은 점차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 2024년 기준 보수 성향(매우+다소 보수)은 30.2%, 진보 성향(매우+다소 진보)은 24.6%로 나타나, 중도층이 점차 보수 혹은 진보로 이동하며 이념 지형이 서서히 양극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국민 이념 성향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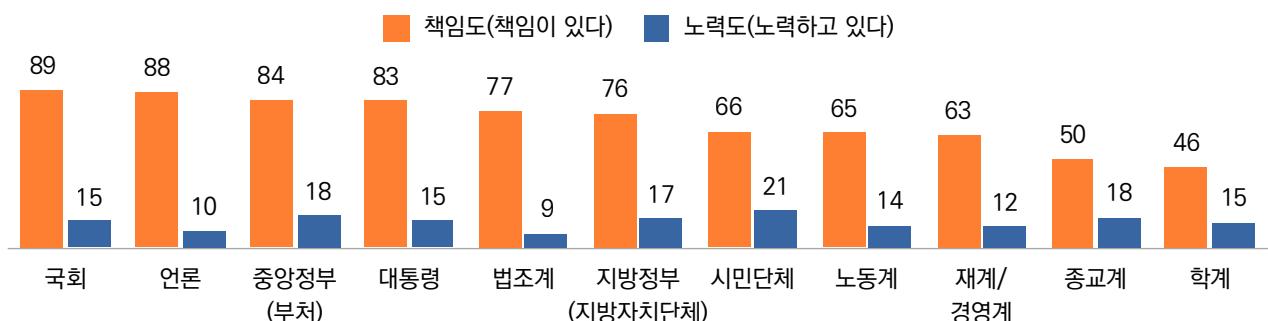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5.01.(만 19세 이상 남녀 8,251명, 케이스탯리서치, 면접조사, 2024.08.01.~09.30.)

사회 갈등의 책임은 국회·언론, 해결 노력은 시민단체·중앙정부·종교계가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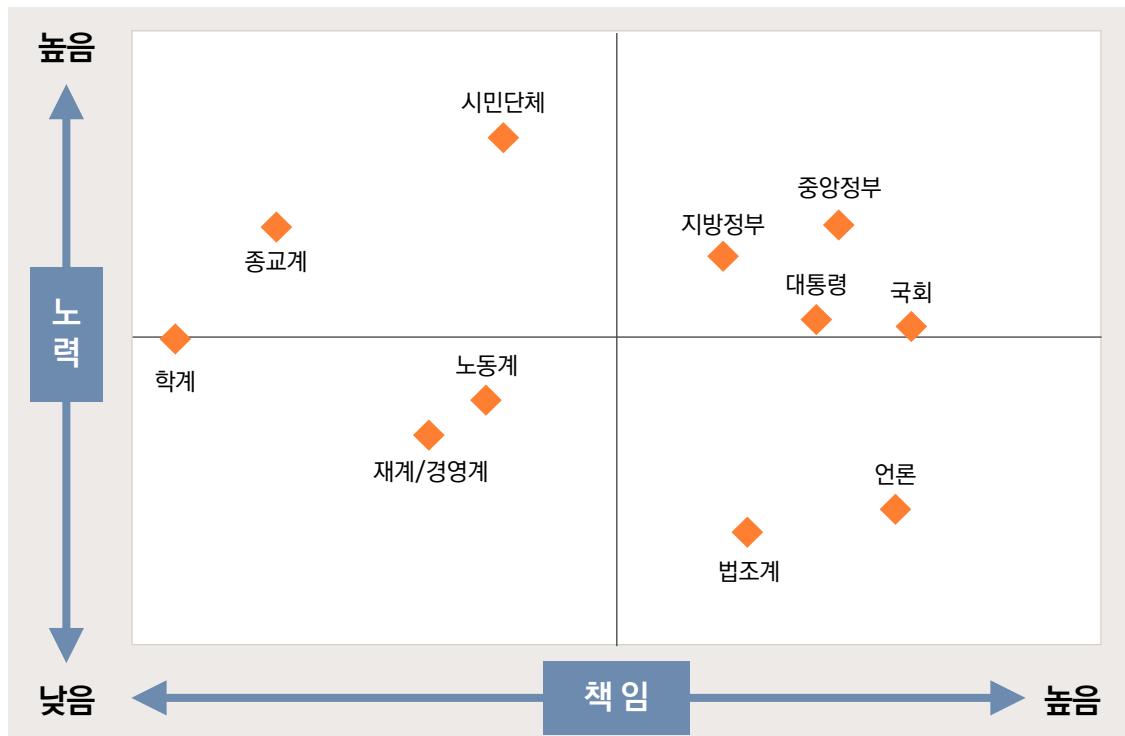
- 사회 갈등 책임 인식에서 국민은 국회(89%)와 언론(88%)을 가장 큰 책임 주체로 지목했다. 반면 갈등 해소를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비율은 시민단체(21%), 중앙정부(18%), 종교계(18%) 순으로 나타나, 책임과 노력 사이에 뚜렷한 간극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전반적으로 사회 갈등 책임 정도에 비해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도는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20% 미만의 낮은 수준을 보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사회 갈등 책임도와 사회 갈등 해소 노력도 (2024, 일반국민, %)



- 사회 갈등 책임도와 해소 노력도 Portfolio를 보면 높은 책임에 비해 노력이 낮은 그룹은 언론과 법조계로 나타나 우리 사회 언론과 사법 신뢰도가 낮은 이유를 말해준다.
- 책임도 높고, 상대적으로 노력도 높은 집단은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통령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비교적 높은 평가를 얻었다.
- 한편 책임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노력하는 집단으로는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꼽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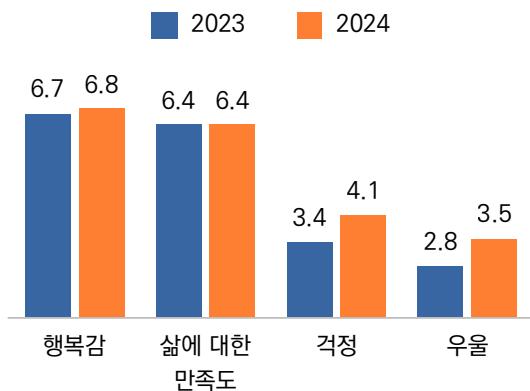
〈 사회 갈등 책임도와 해소 노력도 Portfoli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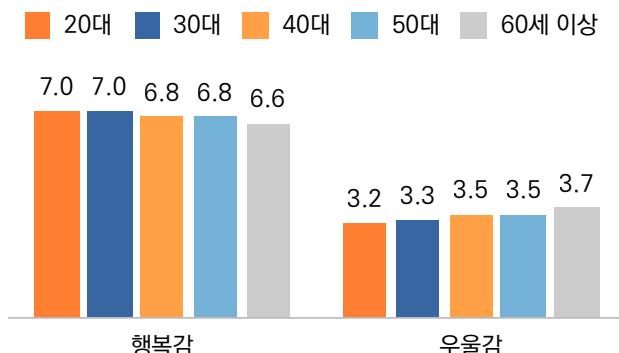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4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5.01.23.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12.30. ~2025.01.06.)

- 우리 국민의 주관적 웰빙 수준을 살펴본 결과, 행복감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걱정, 우울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낮아지고, 우울감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점이 주목된다.

[그림] 주관적 웰빙 수준* (2023~2024, 일반국민, 점)



[그림] 연령별 행복감과 우울감* (2024, 일반국민,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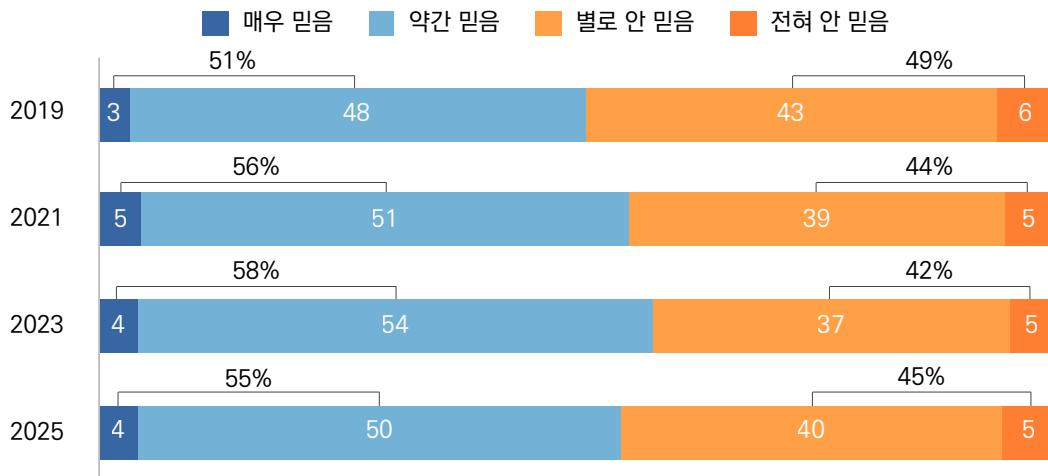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5.01.(만 19세 이상 남녀 8,251명, 케이스탯리서치, 면접조사, 2024.08.01.~09.30.)
*0~10점 척도

국민 55%, '우리 사회를 신뢰'...2023년 대비 신뢰 약화!

- 국민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을까?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신뢰한다'는 응답은 55%(2025년)로, 국민 절반 이상이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6년 전인 2019년 51%에서 2021년 56%, 2023년 58%로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2025년(55%)에는 다소 하락한 흐름을 보였다.

[그림]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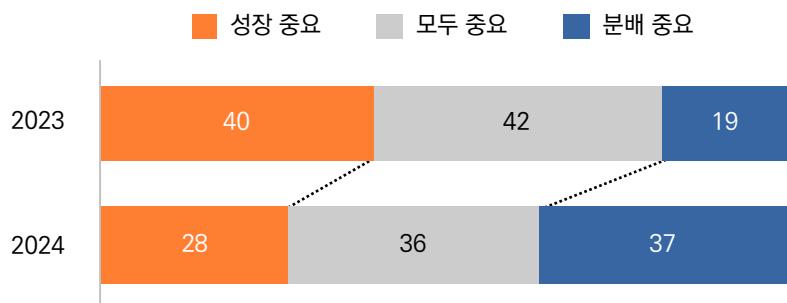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2025.11.11.

*4점 척도

성장보다 분배가 중요, 1년 새 크게 증가!

-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과 분배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물은 결과, '분배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높았으며, '성장과 분배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은 36%, '성장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 특히 분배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2023년 대비 18%p나 증가해, 국민들의 인식이 분배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성장과 분배의 중요성 인식 (2023~2024, 일반국민, %)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5.01.(만 19세 이상 남녀 8,251명, 케이스탯리서치), 면접조사, 2024.08.01.~09.30.)

이번호 요약

1. 한국의 가장 큰 갈등 영역, 1위는 이념갈등!

- 14개 집단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갈등 심각성을 평가한 결과, ‘진보세력과 보수세력’(91%), 즉 이념갈등이 가장 갈등이 심각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2. 국민 이념 성향, 중도 줄어들고 보수/진보로 서서히 양극화 추세!

- 일반 국민의 이념 성향을 보면, 중도가 45.2%로 가장 많지만, 최근 3년간 중도층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보수와 진보를 선택하는 응답은 점차 늘어나 이념 지형이 서서히 양극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3. 사회 갈등의 책임은 국회·언론, 해결 노력은 시민단체·정부·종교계가 앞서!

- 사회 갈등 책임 인식에서 국민은 국회(89%)와 언론(88%)을 가장 큰 책임 주체로 지목했다. 반면 갈등 해소를 위해 실제 노력하고 있다는 비율은 시민단체(21%), 중앙정부(18%), 종교계(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서적]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출판, 위르겐 하버마스)

관련 성경 구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목회 적용점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는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이념·세대·지역 전반으로 확장되며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민의 93%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념 성향은 중도층이 줄고 보수와 진보가 점차 양극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공동체의 결속을 회복하고 관계성을 새롭게 세우는 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교회는 사회 갈등의 책임을 묻는 인식 속에서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단’으로 언급될 정도로 도덕적·공적 기대를 받고 있다. 이는 교회가 갈등의 한쪽 편에 서기보다, 평화중재자이자 화해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념·세대·지역을 아우르는 신앙 공동체의 자원은 사회가 갖지 못한 독특한 자산이며, 갈등을 치유하는 공동선의 역할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공적 갈등에 개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갈등 해소를 정치적 영향력 확장이나 교회 이미지 개선의 도구로 삼는 태도는 위험하다. 갈등 화해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삶으로 구현하려는 신앙적 응답에서 출발할 때, 비로소 신뢰와 공감이 형성된다. 갈등을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회복해야 할 관계’로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또한 갈등이 심화될수록 이웃 간 접촉은 줄어들고, 타 집단에 대한 배타성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때 교회는 소그룹 모임, 세대통합 예배, 지역사회 대화모임 등 작은 실천을 통해 상호이해의장을 마련할 수 있다.

종교사회학에서 종교의 기능 중 하나가 사회통합 기능이다. 교회가 갈등의 주체가 아닌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나와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소원한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2024 고독사 실태





[2024 고독사 실태] 고독사 사망자 수, 5년 새 20% 증가!

- 고독사 문제는 독거노인,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이미 중요한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고독사예방법 제2조)을 의미한다.
-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2020년 3,279명 대비 약 20% 증가했다.
-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 역시 2022년(0.95명) 잠시 100명당 1명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해 2024년 1.09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림]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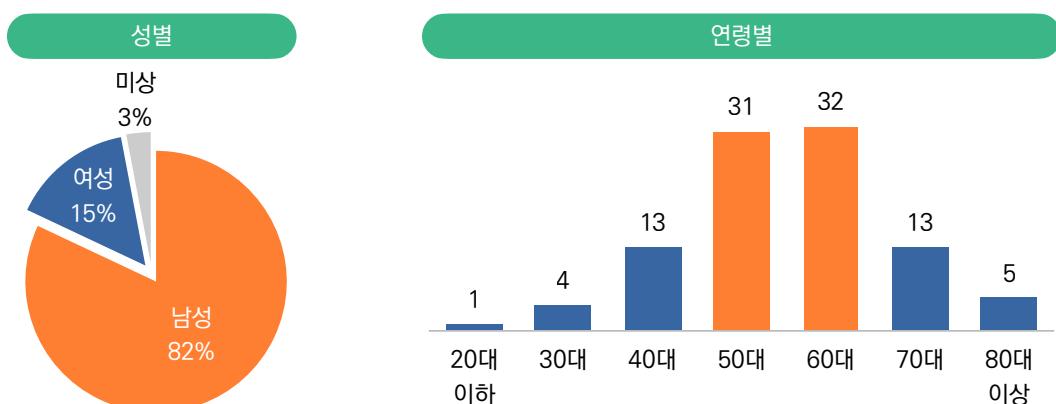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 고독사 전년 대비 증가,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예정”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 2025.11.28.

고독사 사망자, '50·60대 남성'!

- 고독사 사망자의 성별·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82%로 여성(15%) 대비 압도적으로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31%), 60대(32%)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남성이 고독사에 취약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특성 (20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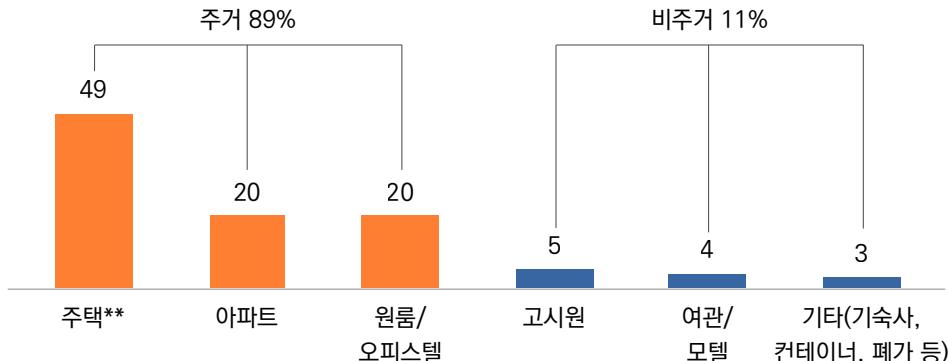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 고독사 전년 대비 증가,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예정”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 2025.11.28.

고독사 발생 장소, 주택 등 대부분 주거지!

- 고독사 발생 장소로는 주택(49%), 아파트(20%), 원룸/오피스텔(20%) 등 대부분 주거지(89%)에서 발생했으며, 그 외 고시원 5%, 여관/모텔 4% 순이었다.

[그림] 고독사 발생 장소* (2024,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 고독사 전년 대비 증가,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예정”(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 2025.1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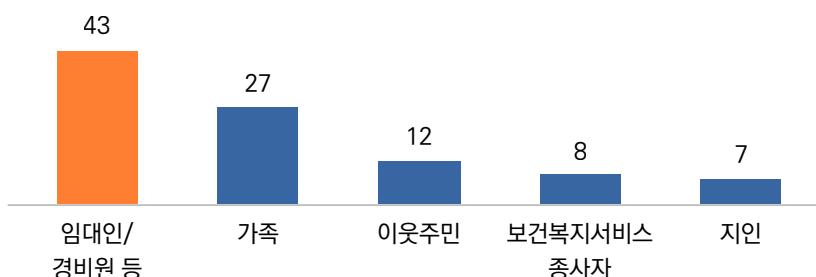
*주거와 비주거 구분 : 주거는 ‘생활 기반이 형성된 상시 거주 공간’, 비주거는 ‘일시 숙박·단기 체류 중심 공간’을 의미함.

**주택 : 단독, 다세대, 연립, 빌라

고독사 최초 발견자, ‘임대인/경비원 등’이 ‘가족’보다 훨씬 많아!

- 고독사 현장을 최초로 발견(신고)한 사람은 ‘임대인/경비원 등’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27%), ‘이웃주민’(12%),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8%) 순이었다. 가족, 지인보다는 임대인/경비원 등에 의한 발견 비중이 높은 점은 이들의 사회적 고립 상태가 심각함을 시사한다.

[그림] 고독사 현장을 최초로 발견(신고)한 사람 (2024,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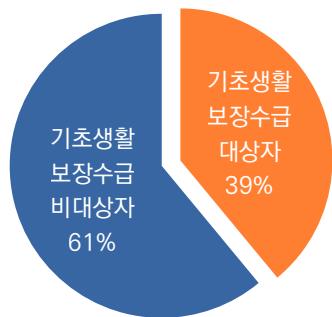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 고독사 전년 대비 증가,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예정”(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 2025.11.28.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명 중 4명꼴!

-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비중을 살펴본 결과, 39%로 10명 중 4명꼴로 나타났다.

[그림]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현황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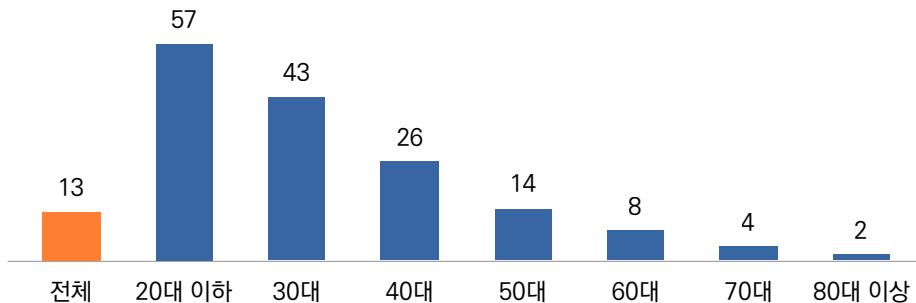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 고독사 전년 대비 증가,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예정”(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 2025.11.28.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자 비중,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아!

-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3%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57%로 가장 높았고, 30대 43%, 40대 2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자 비중* (2024, 연령별,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 고독사 전년 대비 증가,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예정”(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 2025.11.28.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링크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44호 \(2025년 12월 1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정부 출범 6개월 분야별 정책 평가

사회 일반

[집값 상승에 가구 자산 5% 늘었지만…불평등은 역대 최고](#)

연합뉴스_2025.12.4.

[아이들 노린 '온라인 그루밍' 범죄…서울시, AI로 잡아낸다](#)

중앙일보_2025.12.2.

[여성 5명 중 1명이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피해…피해자 20대女 가장 많아](#)

중앙일보_2025.12.1.

[산모 3명 중 2명이 제왕절개 '역대 최대'](#)

조선일보_2025.12.8.

["여성 출산 의향, 가치관 아닌 출산 후 노동 지속가능성이 영향"](#)

연합뉴스_2025.12.4.

[50대 근로소득 첫 감소, 투잡 뛰는 가장들](#)

동아일보_2025.12.4.

['국내 20명 중 1명'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귀화·이민자](#)

한겨레_2025.12.8.

아동 · 청소년 · 청년

[청소년 44% '주 5일 이상 아침 굶어'…음주·흡연율은 감소 추세](#)

연합뉴스_2025.12.4.

[청년들 상경 이유 있었다, 소득 23% 늘어](#)

조선일보_2025.12.4.

노인

[10명 중 1명만 "노후 준비 충분"… 3명 중 2명 "月 70만원 연금에 의존"](#)

조선일보_2025.12.5.

경제 · 기업

[월급 3% 오를 때 근로소득세 9% ↑ …사회보험료·생계물가는 4% ↑](#)

연합뉴스_2025.12.4.

[미국서 '유니콘 기업' 229개 나올 때 달랑 2개…한국의 현주소](#)

한국일보_2025.12.3.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링크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한은 “국내 AI 인력 5.7만명…급여 문제·해외 유출로 수급 불균형 심화”

동양일보_2025.12.5.

전 세계 빛 50경원…“커지는 부채의 유혹, 이번엔 진짜 다르다”

조선일보_2025.12.7.

전 세계 억만장자 3000명 육박…한국은 7명 줄어 31명

국민일보_2025.12.7.

국제 · 환경

미 청년 64% “민주주의 위기”…“부모보다 잘 살 것” 30%뿐

동아일보_2025.12.5.

건강

남녀 ‘심혈관질환 증상’ 다르다, O? X?

헬스조선_2025.12.1.

비만율 1위는 울산, 담배사용율 1위는 충북…왜?

한겨레_2025.12.8.

기독교 · 종교

한국교회 성도 10명 중 4명 60세 이상…고령화 가속

국민일보_2025.12.8.

프랑스 복음주의 쑥쑥… 성도 70년새 20배

국민일보_2025.12.4.

기획기사 : [상생의 정년연장을 위해], 국민일보

① 퇴직하니 ‘소득 공백’… 어찌합니까 _2025.12.2.

② 60세 정년도 못 하는데… 대기업·정규직만 혜택 ‘논란’ _2025.12.4.

③ “정년연장, 노동시장 유연화·임금 체계 개편 병행해야” _2025.12.5.

④ 손도 못댄 고차방정식… 먼저 푼 日에 힌트있다 _2025.12.6.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텡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자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승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포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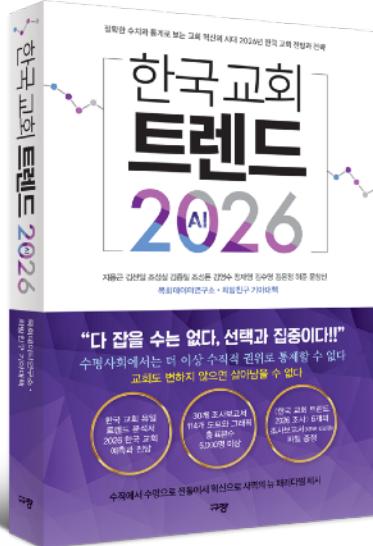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거룩한씨성동교회 (담임목사 최윤영), 주다산교회 (담임목사 권순웅), 윤금배, 안은정,

연구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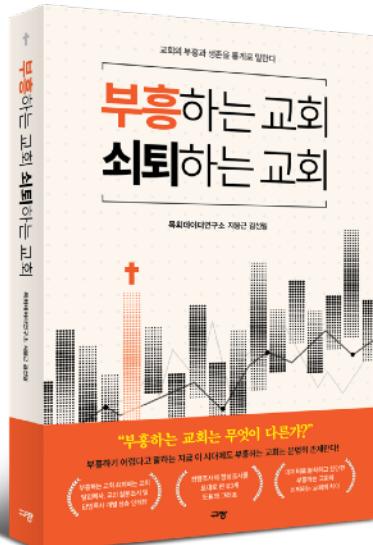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와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준비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내년도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를 출간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혼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